

하반기 경기전망, 상반기 比 호전 응답 6.2%p 증가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경영애로 · 2025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16~20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5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전망은 '호전 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13.8%로, 상반기 7.6% 대비 6.2%p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알 수 있는 항목별 경기전망에서는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매출(8.4%→14.8%), △영업이익(8.4%→14.8%), △자금사정(6.2%→11.4%), △공정가동률(9.6%→10.4%)이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역계열 추세 항목에서도 △인력수준

(18.6%→13.6%), △재고수준(9.6%→8.0%), △설비수준(2.8%→1.2%) 모두 호전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5년 주요 경영 애로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부진(51.2%→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자재가격 상승(43.6%→41.0%), △인건비상승(39.6%→38.4%), △자금조달 곤란(21.4%→21.2%)이 뒤를 이어, 하반기 경영애로 요인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90.0%) 내수경제 예상 회복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응답했다. '2026년'에 내수경제가 회복할 것이

라고 응답한 기업이 54.4%(26년 상반기 31.8% + 26년 하반기 22.6%), '2027년'으로 응답한 기업은 35.6%로 나타난 반면, '2025년 하반기'에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10.0%에 불과했다.

2025년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으로는 비용절감·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27.6%)가 가장 많았고, △경영리스크 관리(21.6%), △핵심 인력 유지 및 역량강화(17.0%), △외형성장(10.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52.6%), △금융 지원

(45.8%), △인력난 해소(28.4%), △원자재 수급 안정화(26.2%) 순으로 조사되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전망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하반기에도 내수부진이 주요 경영 애로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중·단기적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52.6%) 세부담 완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만큼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지원하고, 인력난 해소와 원자재 수급 안정화 등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1일 전주 본사에서 '제48주년 창사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중격마’ 정신으로 4년 내 정상화

LX 48주년 창사기념식…노사 하나 되어 경영평가 등급상향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가 지난 1일 전주 본사에서 '제48주년 창사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기념식은 어명소 사장, 위경열 노동조합 위원장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8년간의 LX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LX는 어려운 경영 위기 속에서도 노사가 '중격마' 정신으로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 2024년도 정부 경영평가에서 D등급에서 C등

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비용 절감과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로 LX는 4년 이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LX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어 어명소 사장의 기념사와 LX 재도약을 주제로 한 기념사 영상을 통해 LX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전북상의, 전북 제조업체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89'

새 정부 경기 부양 기대감에 긍정적 기류 감지… 본격 회복까지 시간 필요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12.3 사태 이후 극심했던 경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하반기부터는 기업경기가 제한적이나 회복기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익산 군산, 전북상협, 김제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11개 제조업체에서 회수된 조사표를 대상으로 조사한 3/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BSI(Business Survey Index)가 '89'로 집계되었다.

3/4분기 B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전방치임에도 경기회복을 언급한

것은 지난 1/4분기(68)과 2/4분기(69)에 비해 수치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수출 회복세와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대감이 기업 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상의는 예측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고물가 지속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부진 장기화가 예견되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동 지역 분쟁, 미·중 갈등 심화 등이 수출과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항목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매출액(92), 영업이익(82), 설비투자(91), 자금사정(67) 등 모든 지수가 모든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자금사정 지수는 주요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기업이 자금 조달에 여전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기업 규모와 매출 유형별 3/4분기 경기전망지수(BSI)는 전 분기보다 상승했으나, 기준치(100)를 넘지 못해 경기 회복 체감은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견기업은 78에서 95로, 중소기업은 67에서 88로 상승했으며, 수출기

업도 79에서 95로 개선됐다. 내수기업은 88까지 회복했으나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은 신기술 개발, 원가 절감,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자생력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책당국도 규제 완화, 예산 조기 집행, 대외 통상 전략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통 떡부터 대체육까지… 전북 식품이 제안하는 북미 식탁의 새로운 기준

도·바이오진흥원, '뉴욕 팬시푸드쇼 2025' 전북 홍보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미국 뉴욕 제이콥 자비센터에서 개최된 '2025 뉴욕 팬시푸드쇼(Summer Fancy Food Show 2025)'에 참가해 전북 홍보관을 운영하고, 총 60만 불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68회를 맞이하는 뉴욕 팬시푸드쇼는 전 세계 56개국에서 2,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약 46,000명의 식품 유통 관계자 및 바이어가 방문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B2B 식품박람회로,



바이오진흥원은 전통 떡 가공식품을 선보인 '사임당푸드(고창)'와 식물성 대체육 전문 브랜드인 '수지스프링비셀푸드(전주)' 2개 기업을 선정해 참가를 지원했다.

또한 박람회 참가에 앞서 미국 시장의 소비 트렌드와 유통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요건과 시장 진출 전략을 안내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한편 전시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 바이어들은 전북 식품의 강점으로 △청정 원료 기반의 우수성, △조리의 간편함 △풍미와 식감의 차별성, △한국 전통 식문화의 매력 등을 언급했다. 특히 북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먹거리'로서 전북 식품의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북미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식물성 기반 식단과 지속 가능한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군이 포함된 점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

끌어냈다.

참가기업 중 전통 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공식품을 선보인 사임당푸드는 K-디저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현장에서 진행한 시식 행사는 채식 및 글루텐프리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 구성으로 호응을 얻었으며, 수지스프링비셀푸드는 식물성 단백질 기반의 대체육 제품을 훌륭하여 비건·지속가능성 중심의 북미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주목 받아 클린 라벨·지속가능성을 내세운 브랜드 스토리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져 북미 HMR 유통사와 소포장 변경 및 샘플 테스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태국서 230만 달러 수출 협약 체결

농어촌공, '케이-농기자재 시장개척단' 파견…수출상담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태국에 '케이(K)-농기자재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수출상담회를 열어 총 230만 달러(한화 약 31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농기계, 비료 등 국내 농기자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농산업수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농기자재 기업이 더욱 쉽게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수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개척단'과 더불어 맞춤형 컨설팅, 해외 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동남아 농기자재 시장 진출 교두보인 태국에 파견됐다. 태국은 농업 부문 GDP 비중이 8%에 이르는 대표적인 농업국가로 관련 정책에 따라 친환경 자재, 스마트농업 기술 등 농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특성과 함께 인도차이나-태국 중앙에 있는 지리적 특성 등에 따라 태국은 한국 농기자재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시장개척단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파견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이어왔다. 태국 정부의 농업정책과 유통 구조, 인증제도 등 사전에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대상 교육을 진행해 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지 수출상담회도 빈틈없이 추진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태국 현지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15개 사가 참여했다. 공사는 태국과 인접 국가의 구매기업 52곳을 초청해 국내기업이 해외 구매기업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1:1 상담을 우선해 수출 기회를 제공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